

Market Clues



4월 3주차 지표 개선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

Quant 염동찬

02 3779 8918

dongchan@ebestsec.co.kr

EBEST^o
이베스트투자증권



Quant 염동찬

02 3779 8918

dongchan@ebestsec.co.kr

‘4월 3주차’, KOSPI가 연고점 수준을 회복했습니다. 여전히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나타난 강세입니다. 글로벌 주변 환경을 점검해보면 여러 관점에서 지표가 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실적과 주가의 괴리는 존재하지만, 아직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시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.

#1. 미국은 1/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했지만, 어닝 시즌의 문을 연 대형 금융주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. 1/4분기 이익의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, 2/4분기 이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힘을 얻고 있습니다. 대형 M&A의 발표 역시 금융시장에는 긍정적일 것입니다.

#2. 유럽과 중국 역시 비슷합니다. 브렉시트는 10월말까지 연장되면서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었습니다. 선진유럽과 이머징 유럽의 EPS 증가율이 바닥 통과 흐름을 보이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. 중국은 긍정적인 3월 수출지표를 발표하였으며,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플러스 영역에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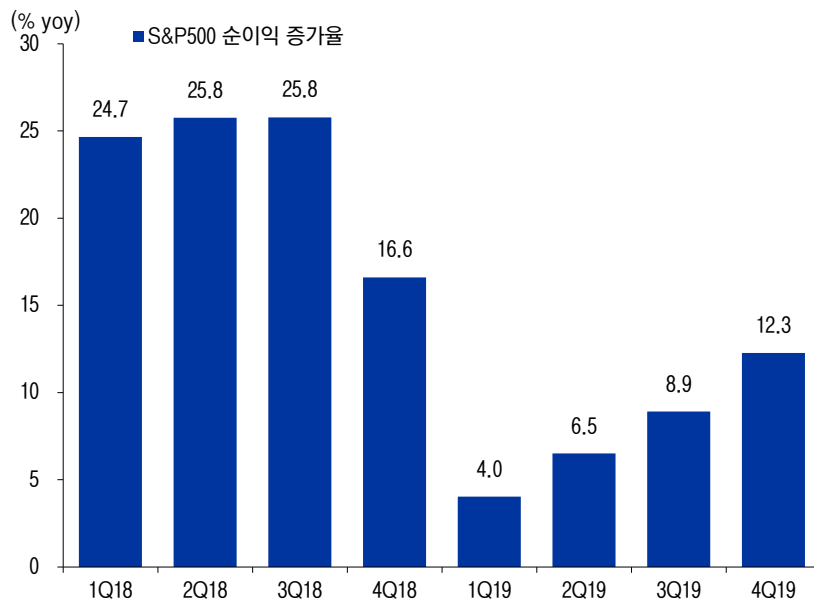
#3. 전세계 IT 기업들이 실적은 하향 조정되고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한국 역시 1/4분기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되었지만, KOSPI의 상승세는 IT 기업이 이끌어왔습니다. 실적 개선 없는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제기되었지만, 다른 업종의 강세가 이를 상쇄하고 있습니다. 1/4분기 주가 상승이 IT업종에 쏠려 있었다면, 상승 업종이 늘어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.

1. 미국: 어닝 시즌 우려감에도 불구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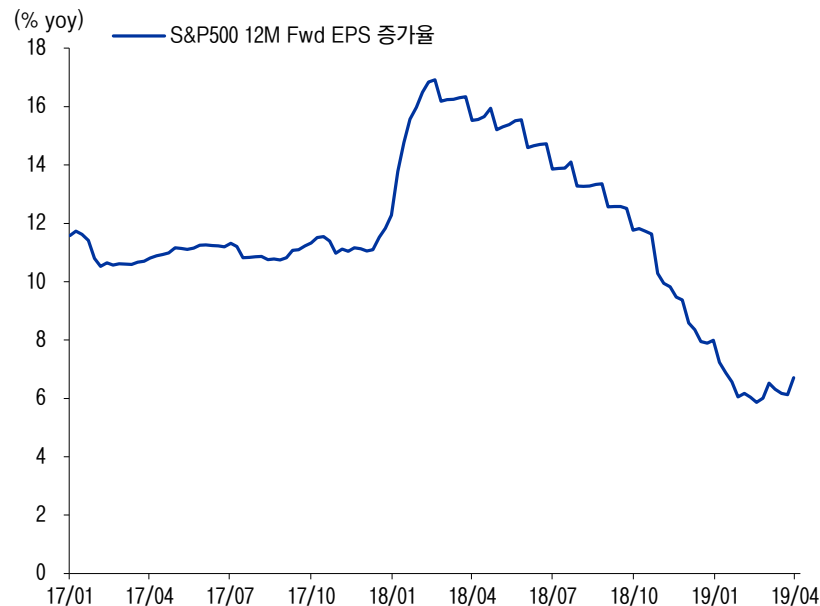
● 미국 1/4분기 어닝 시즌 우려감

- 미국 1/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,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이슈
- 특히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역성장 가능성 역시 제기되어왔으며, EPS 추정치 역시 하향 조정을 지속해옴
- 하지만 증가율 기준으로 1/4분기가 바닥이 될 것이라는 전망 영향으로, 4월 이후 12M Fwd EPS의 경우에는 소폭 상향 조정

미국 분기 EPS 증가율은 1/4분기가 바닥



미국 EPS 증가율 하향 조정 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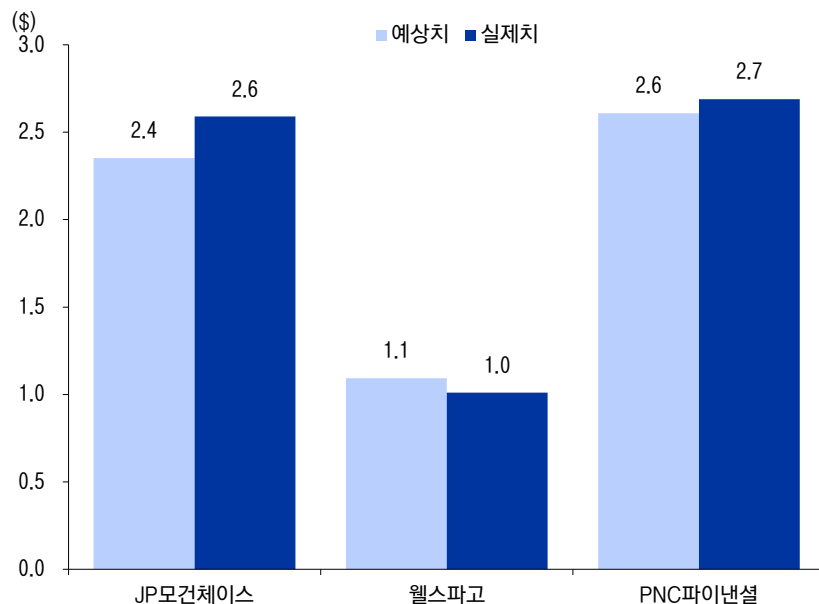
주: S&P500 순이익 증가율은 EPS와 유동주식수를 이용하여 합산
자료: Bloomberg, Thomson Reuters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1. 미국: 금융주는 호실적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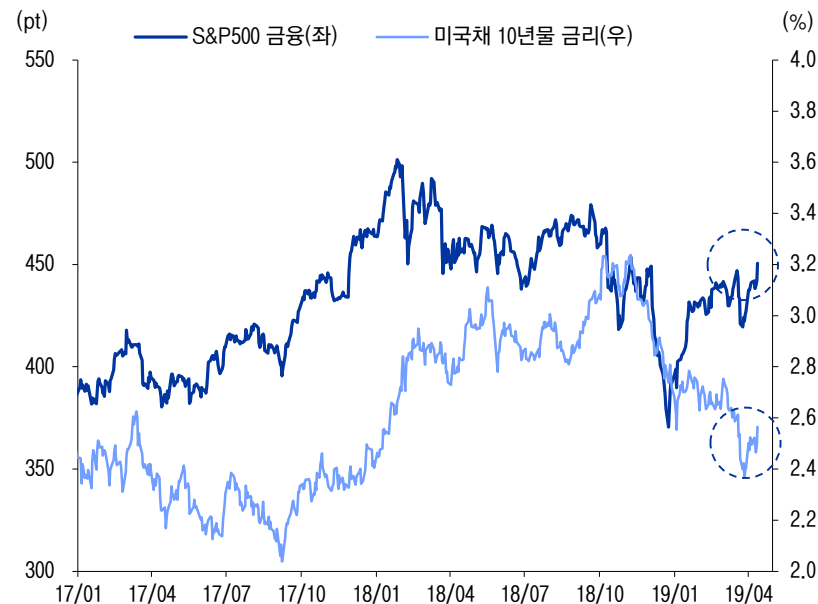
● 금융주 호실적으로 긍정적인 어닝 시즌 개막

- 우려와 달리 4월 12일에 실적을 발표한 JP모건, PNC파이낸셜 등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, 금융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
- 시장금리가 상승까지 겹치면서, 금융주는 4월 12일에 S&P500 업종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
- 다만 웰스파고의 경우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 발표에도 불구하고, 순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하며 주가는 약세를 기록했지만 전체 금융주 강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

미국 대형주 금융 기업의 1/4분기 EPS



시장금리 상승과 실적 호조 영향에 미국 금융주 강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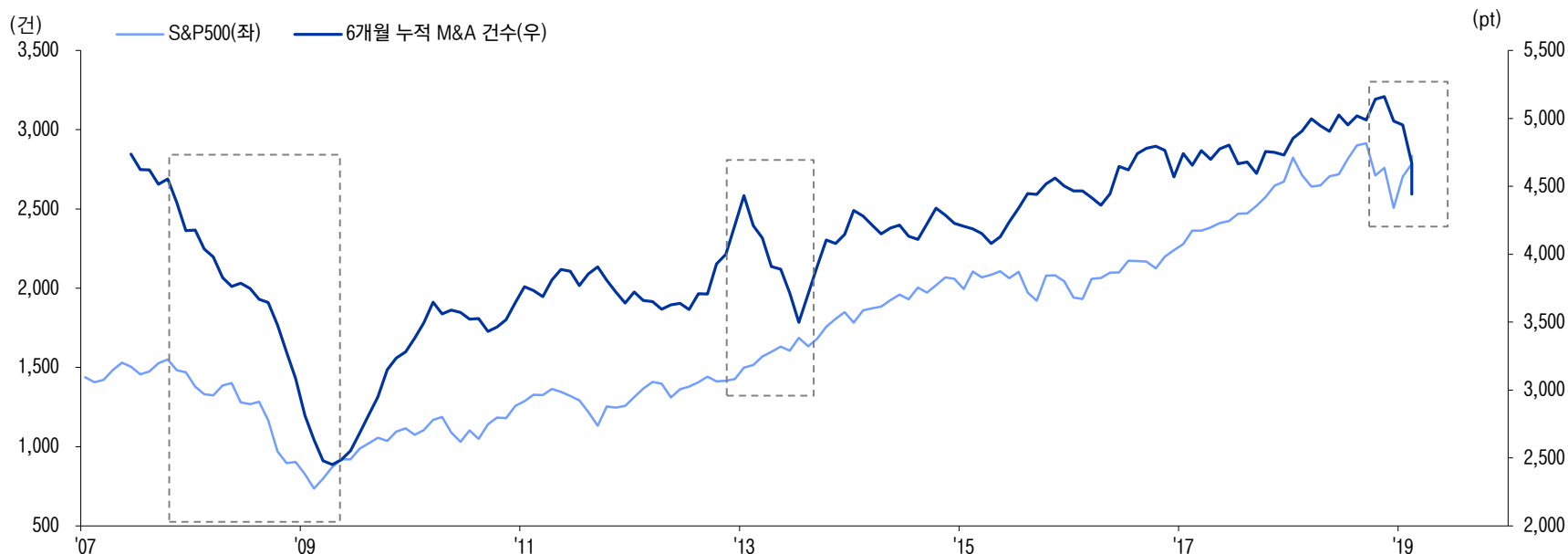


1. 미국: 대형 M&A 소식 역시 긍정적

● 에너지 기업 쉘브론의 아나다코 페트로리엄 인수 소식

- 4월 12일에 에너지 기업 쉘브론이 330억 달러에 아나다코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발표. 이는 에너지 기업 분야 역대 11번째 규모.
- M&A는 시중의 유동성, 경기에 대한 전망 등을 반영하는 지표인데, 과거 주가와 M&A건수는 높은 상관성을 보여왔음
- 지난해 말 이후 M&A건수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, 2009년처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현상이라는 주장보다는 2013년과 같이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

S&P500 과 미국 M&A 건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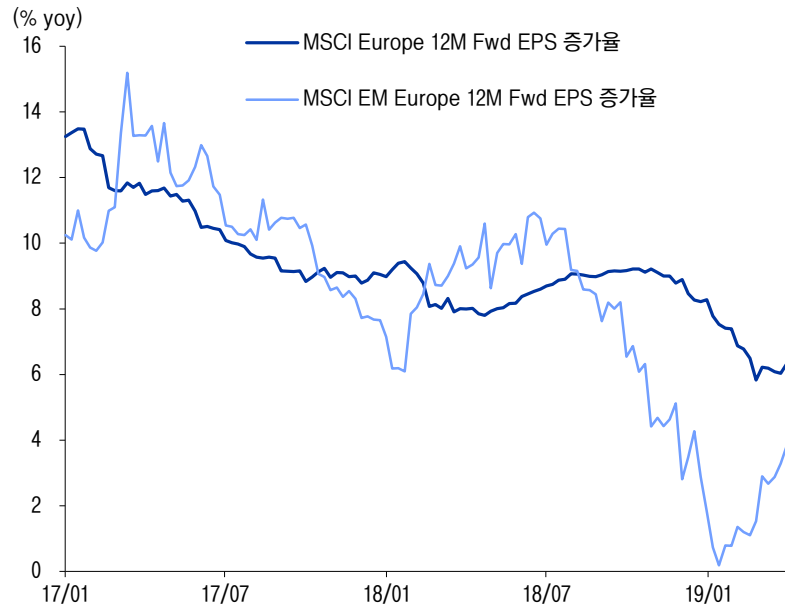


2. 유럽: EPS 증가율 반등 및 4/4분기 하락폭 만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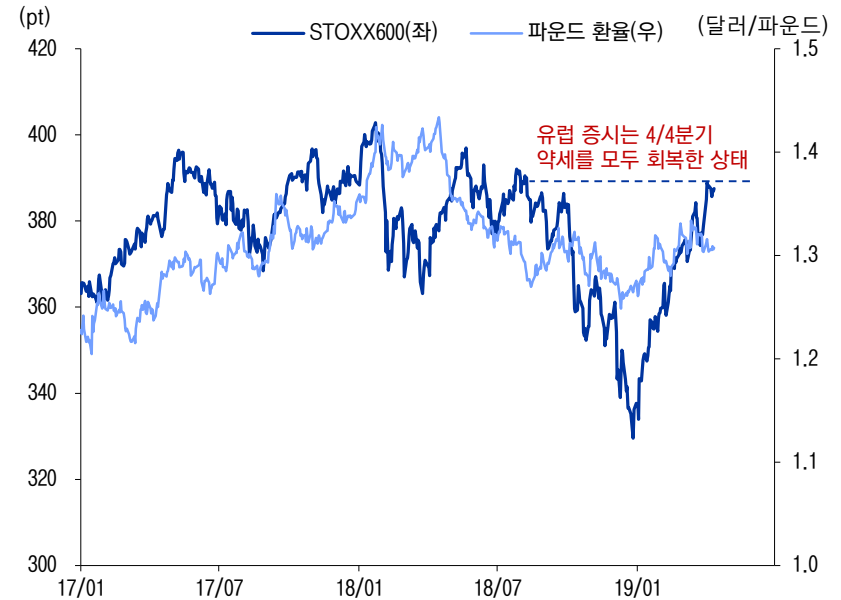
● 브렉시트 우려 완화 및 실적 개선

- EU가 브렉시트 시한은 최장 10월 31일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하면서, 노딜 브렉시트 우려는 완화되고 파운드화는 강세
- 선진 유럽과 이머징 유럽의 EPS 증가율은 최근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, 특히 이머징 국가의 EPS 증가율이 빠르게 반등
- 유럽 주가 지수는 이미 지난해 4/4분기의 하락을 모두 회복한 상황

선진/이머징 유럽 모두 EPS 증가율 바닥 통과 움직임



파운드화 환율과 STOXX600



2. 중국: 수출 데이터 회복 및 CESI 플러스권 진입

● 중국 경제지표 개선

- 2월 중국 수출 부진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했지만, 3월 지표는 큰 폭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기록
- 중국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플러스를 회복한 데 이어, 최근 상승폭을 크게 확대
- 상해종합지수 역시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며, 4월 12일 종가 기준으로 무역 분쟁 이전 고점까지는 약 10%가 남아있는 상황

중국 3월 수출지표는 2월 부진에서 빠르게 반등



상해종합지수와 중국 CES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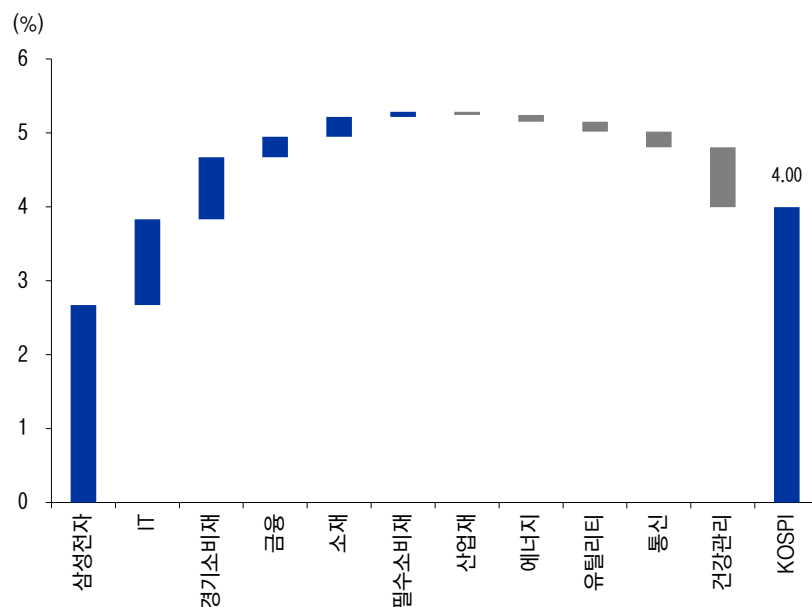


3. 한국: 4월부터 나타난 주도 업종 변화 움직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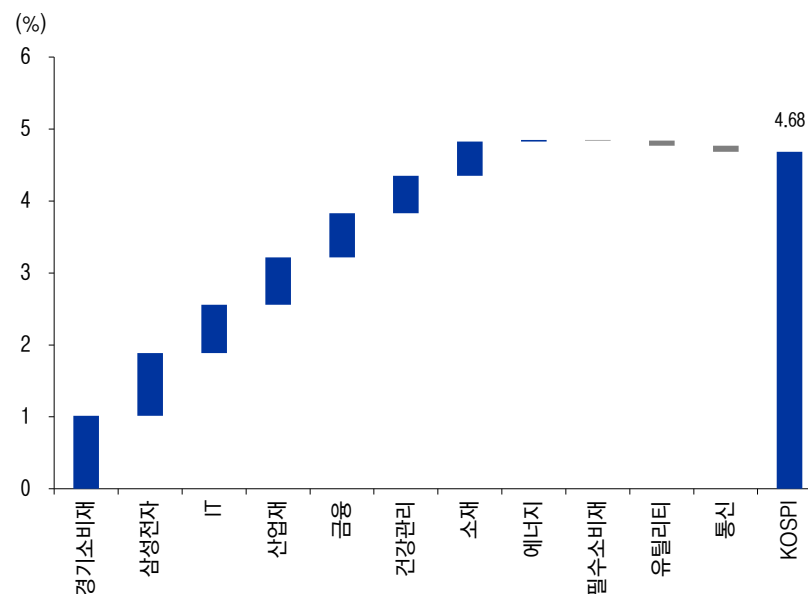
● IT중심 상승세에서 다양한 업종의 기여로 KOSPI 상승

- 1/4분기 KOSPI 강세는 삼성전자와 IT 업종이 대부분의 상승세를 설명하고, 경기소비재, 금융, 소재 역시 상승세에 기여
- 4월에는 이러한 흐름에 변화가 생겼는데, IT업종은 여전히 강세를 보였지만 기여도는 감소하고 경기소비재, 산업재 등의 기여도 증가
- 하락에 기여하는 업종의 비중이 감소하면서, 업종별 성과 차별화 현상이 완화된 점 특징적
- 최근 글로벌 IT 업종이 강세를 보여왔지만, IT의 실적은 아직 개선 흐름을 보이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둔화된 점과 유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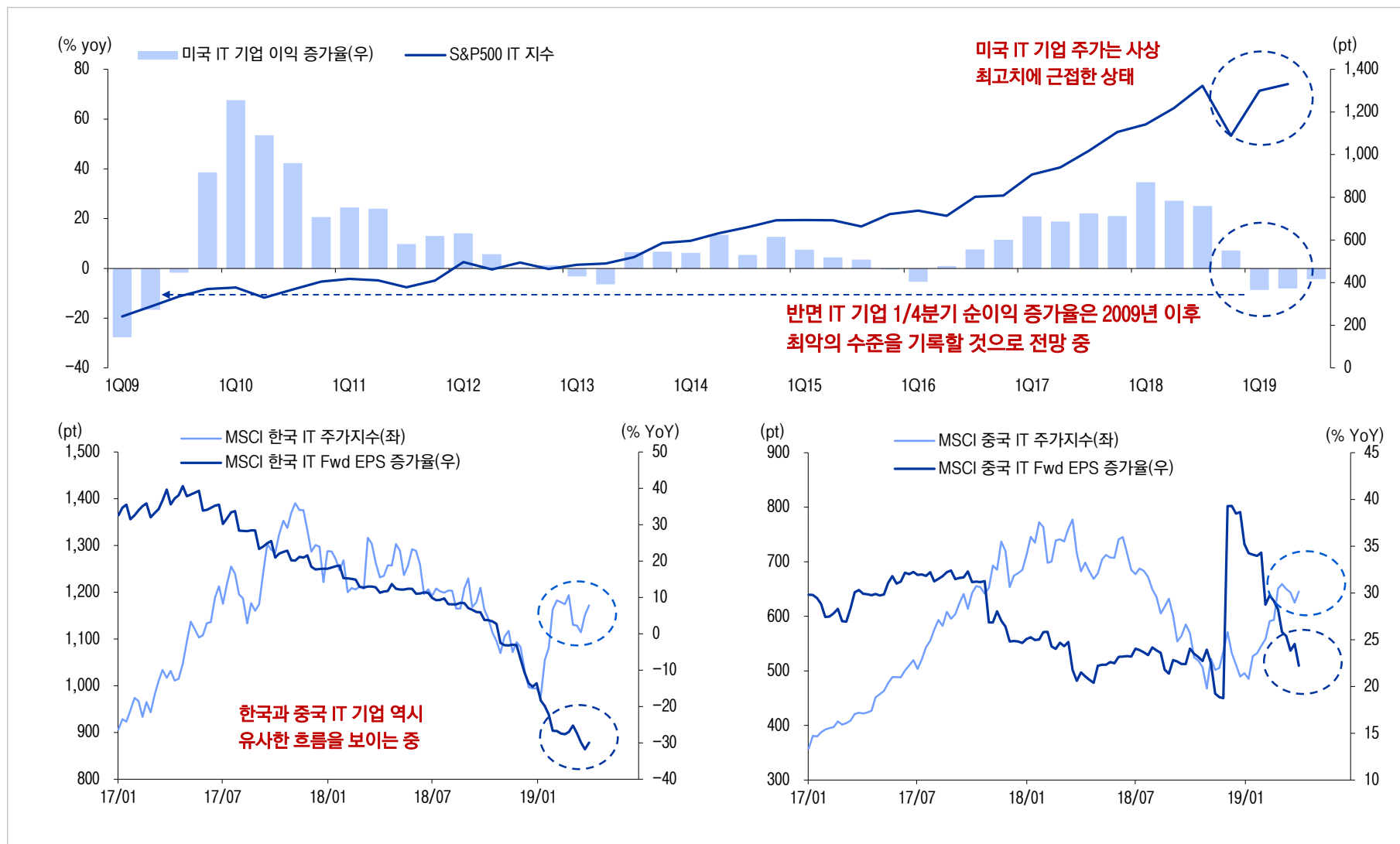
1/4분기 KOSPI 수익률 업종별 Break-down



4월 KOSPI 수익률 업종별 Break-down



3. 전세계 IT 기업의 실적과 주가의 괴리



자료: Bloomberg, Thomson Reuters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염동찬)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